

# 빅테크 경쟁 마주한 은행권 수장들 “디지털혁신” 한마음

## 2022 은행 이슈

디지털 전환 초점... 조직개편 단행  
쇼핑·배달 등 데이터 확보 총력  
중장기적 관점에서 새로운 고객 유입

임인년(壬寅年) 새해를 맞아 은행권 수장들은 공통으로 ‘디지털 혁신’을 강조했다. IT업체(빅테크)들이 은행권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은행권도 뒤처지지 않기 위해 디지털 전략을 새로 짜야 하는 상황이다.

5일 은행권에 따르면 5대금융지주(KB금융·신한·우리·하나·NH농협)와 은행들은 신년사를 통해 ‘디지털 혁신’을 화두로 꺼냈다.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은 디지털을 통해 최고의 고객 경험을 제공을 강조했다. 윤 회장은 “고객의 입장에서 사고하고 고객의 이익을 우선시해 KB만의 차별화된 고객가치와 신뢰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했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디지털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손병환  
NH농협지주 회장

플랫폼 강화로 빅테크와의 경쟁을 선언했다. 조 회장은 “디지털 플랫폼을 빠르게, 빠르게, 다르게 운영해 디지털 생태계를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태승 우리금융회장은 디지털 초혁신추진을 강조했다.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디지털 강화 속도를 높여 고객 편의 제고를 과제로 내세웠다. 손병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차별화된 디지털 사업 추진을 목표로 잡았다.

이밖에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은 고객을 위해 디지털 강화를 이야기 강조

했다. 지방금융지주(BNK·DGB·JB금융)도 디지털 혁신과 디지털 플랫폼 강화를 강조했다.

은행들은 지난해 말부터 ‘디지털 전환’에 초점을 맞추면서 조직개편도 단행했다.

KB금융은 디지털플랫폼총괄(CDP) 산하 ‘디지털콘텐츠센터’를 신설했다.

신한은행은 디지털 혁신조직인 디지털혁신단을 데이터기획 유닛, 데이터 사이언스 유닛, 혁신서비스 유닛, 데이

터플랫폼 유닛으로 재편했다.

하나은행은 디지털리테일그룹 산하에 디지털전환(DT)혁신본부를 신설했다.

우리은행은 혁신기술사업부를 신설해 메타버스나 블록체인과 같은 새로운 기술과 금융의 결합에 집중할 계획이다.

은행들이 이처럼 디지털을 강조하는 이유는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빅테크 업체들과 본격적인 경쟁을 위한 초석을 다지기 위해서다.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 생활밀착형 서비스와 마이데이터 사업 등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고객을 유입시키고 비금융 데이터를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또한 마이데이터, 마이페이먼트 등 빅테크 기업들과 겨뤄야 할 서비스들이 본격화되는 만큼 디지털 혁신으로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더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신년사에서 “지금 우리 금융산업은 전대미문의 대 격변을 겪고 있다”며 “정보통신기술(ICT)기업들이 금융에 진출하면서 금융·비금융의 경계가 흐릿해지는 ‘빅 블러(Big Blur)’ 현상이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이 됐다”고 말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역시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한층 가속하겠다”며 “인공지능(AI) 활용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데이터 결합 제도도 개선하며 마이플랫폼(개인별 맞춤형 종합금융 플랫폼)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 ‘불공정 행위’에 칼 겨는 공정위 유통업계 “부정적 측면만 부각”

공정위 2022년 업무추진계획 발표  
유통가, 신사업 위축 가능성에 긴장

유통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칼 끝에 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플랫폼 불공정 감시 강화 등을 골자로 한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업무계획에는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으로 지속가능한 혁신기반 마련 ▲갑과 을이 동행하는 시장환경 조성 ▲대기업 집단의 건전한 지배구조와 거래질서 정립 등이 제시됐다.

전날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신년사에서 “거대 플랫폼이 소상공인의 민생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한 직후 나온 공정위가 계획한 주요 사업은 대부분 옴니채널로 전환 중인 유통대기업을 포함해 이커머스 전반이 주요 대상이 된다.

유통업계는 공정위의 행보가 신사업 위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긴장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국감에서 카카오가 93개사(社)를 인수 하는 동안 피인수회사 규모가 300억원 이하라는 이유로 간 이심사를 통해 쉽게 인수·합병을 진행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업계는 카카오와 이커머스업계의 신사업 투자 및 인수·합병은 결이 다르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을 거라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그래도 신사업 투자에 있어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의견이다. 아울러 부정적인 측면만 부각되고 있다며 역을 하자는 측도 있다.

5일 업계 관계자는 “수익을 내는 기업인 만큼 다양한 지점을 따져보고 기업에 꼭 필요한 기술을 보유한 회사에 투자하거나 합병하는데, 이는 스타트업계에 있어서는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구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공정한 시장, 혁신하는 기업, 주인되는 소비자’를 비전으로 설정한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조라고 생각한다”며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에 민감한 여론은 있지만 너무 부정적인 부분만 부각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라고 밝혔다.

퀵커머스 투자 등을 통한 골목상권 침탈 등 문제에 있어서도 “골목상권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주요하게 점검하기로 한 부분 중에는 모빌리티·온라인쇼핑 분야의 자사우대, 앱마켓분야에서의 멀티호밍(업점업체의 경쟁플랫폼과 거래를 방해)제한 등을 플랫폼기업의 독점력 남용행위도 있다. 자사 브랜드를 메인에 올리거나 PB상품 노출 빈도를 갖게 하는 등 일련의 일은 업계의 오랜 관행처럼 굳어졌다.

실제로 A홈쇼핑의 지난해 히트상품 톱10의 1위부터 9위까지는 전부 자사 브랜드다. 5일 현재도 A홈쇼핑 온라인몰 메인에는 자사 브랜드 배너 광고가 가장 먼저 뜨도록 설정돼 있다. 해당 홈쇼핑 등에 상품을 납품 중인 중소 브랜드들은 공정위의 결정을 두고 반기는

분위기지만 동시에 성과가 있겠냐는 분위기다.

B브랜드 MD는 “지금까지 꽤 여러번 홈쇼핑에 대한 제재가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위를 통해 있었던 걸로 알지만 실제로 나아졌는지는 체감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유통업체 32개 브랜드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70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1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쿠팡·카카오선물하기·마켓컬리·SSG닷컴 등 온라인 유통업체 4개사의 매출액은 2019년 8조원에서 지난해 15조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그러나 납품업체 1500곳은 이들 4개사로부터 당한 불공정행위의 빈도가 다른 유형의 유통업체보다 훨씬 높았다고 답했으며, 상품판매 대금을 법정기한 내 받지 못했다고 답한 비율도 7.9%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이 된 C유통기업은 “직매입 구조 등에서 어쩔 수 없이 판매대금 지급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상 한계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답했다.

한편, 일부 유통기업은 중소협력사에 대한 결제 대금 조기지급 등 자발적으로 상생에 대한 노력이 나서고 있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설을 맞아 그룹 12개 계열사와 거래하는 7300여개 중소협력사 결제대금을 당초 지급일 보다 최대 5일 앞당길 예정으로 오는 26일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1번가는 2020년 10월 업계 최초로 빠른 정산 도입 후 이번에는 상품의 택배사 집하완료 기준으로 판매대금을 정산하는 방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seoh@

## 〈외환보유액 추이〉

(억달러, %)

	2017년말	2018년말	2019년말	2020년말	2021.11월말(a)	2021.12월말(b)	전월비 증감(b-a)	
외환보유액	3,892.7	4,036.9	4,088.2	4,431.0	4,639.1	4,631.2	(100.0)	-7.9
유가증권 <sup>1)</sup>	3,588.3	3,796.0	3,850.2	4,098.4	4,209.4	4,216.9	(91.1)	7.5
예치금	206.5	137.3	128.5	202.8	181.9	166.3	(3.6)	-15.6
S D R	33.7	34.3	33.5	33.7	153.5	153.7	(3.3)	0.2
IMF포지션 <sup>2)</sup>	16.2	21.4	27.9	48.2	46.3	46.3	(1.0)	0.0
금	47.9	47.9	47.9	47.9	47.9	47.9	(1.0)	0.0

주: 1) 국제, 정부기관채, 회사채, 자산유동화증권(MBS, 커버드본드) 등  
2) IMF 회원국이 출자금 납입, 융자 등으로 보유하게 되는 IMF 관련 청구권

## 지난달 외환보유액 4631억달러로 ‘뚝’

외국환평형기금 원리금 상환 등 영향

우리나라의 외환보유 규모가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원리금 상환 등의 영향을 받으면서다.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4631억2000만 달러로 전월 말 대비 7억9000만 달러 줄었다.

한은 관계자는 “기타통화 외화자산

의 미달러화 환산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원리금 상환 등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외환보유액은 유가증권이 4216억9000만달러로 91.1%를 차지했고 ▲예치금 166억3000만달러(3.6%) ▲SDR 153억7000만달러(3.3%) ▲금 47억9000만달러(1.0%) ▲IMF포지션 46억3000만달러(1.0%) 등이다. 지난 12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세계 9위 수준이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

## 감사의견 따라 거래정지 장기화 가능성

### 〉 1면 ‘초유의 횡령’서 계속

이어 “대규모의 횡령에 대한 감시 시스템 미비로 인한 ESG 리스크 상승, 낮은 회사 신뢰도로 인해 주가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만약 계좌 동결 가능 시 횡령 금액은 회수할 수 있지만, 일부 회수가 미비한 경우에는 2021년 영업 외 손실로 반영이 가능해 추후 횡령 자금을 대한 회수 여부가 주가 방향성에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3월 회계 감사보고서에서 ‘의견거절’ 등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의견거절은 상장 폐지 기준 중 하나이기 때문에 최대 1년까지 개선

기간을 부여받게 된다. 감사의견에 따라 거래정지가 1년 넘게 장기화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오스템임플란트의 현재 감사인은 인덕회계법인으로 전 감사인(삼덕회계법인)과 다르다. 인덕회계법인이 전기 감사인의 리스크를 짊어지고 가기엔 부담이 커 엄격한 내부회계관리 감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회계법인 관계자는 “내부통제가 제대로 된 회사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며 “기업 내부는 물론 주거래 은행, 거래소 등 관리 감독 소홀의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